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박금주*, 김두화**, 김성현***

〈 목 차 〉

I. 서 론	4.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의 필요성	III. 연구결과
2. 연구의 목적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3. 용어의 정의	2.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대처방식
II. 연구방법	3.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 대한 의견 조사
1. 연구대상 및 방법	IV. 요약 및 결론
2. 조사도구	참고 문헌
3. 자료처리	Abstrac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상아탑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사회의 구성원들 역시 일반 사회에서와는 달리 각종 범죄나 폭력과는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대학과 그 구성원들도 이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대학도 더 이상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빈도가 차츰 늘어가고 있다(김은미, 2003).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1999)에서 실시한 한국의 범죄 피해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1998년 1년 동안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특별연구원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수

***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사무원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율은 1000 사례당 자동차 절도 8.8건, 주거 침입 절도 75.75건, 주거침입강도 5.24건, 대인절도 69.05건, 폭행과 상해 18.57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58.48건 등으로 나타나 성폭력 및 성희롱이 매우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경찰에 신고된 것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범죄보다 신고율이 극히 낮은 성폭력의 실제 범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상신외, 2002). 대학 내의 성폭력사례는 1994년 서울대 조교사건을 비롯되어 최근에는 교수-학생 간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선후배, 심지어는 동성 친구들 간에도 가벼운 그러나 불쾌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각 대학의 실태조사들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뿌리 깊은 순결·정절 이데올로기와 성에 관한 이중적 의식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과 관련된 주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를 꺼려왔고, 성폭력의 피해자도 폭력의 희생자,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으로 보기 보다는 성폭력을 유발했거나 더 이상 순결하지 않은 여자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의 만연으로 인해 은폐되어온 가운데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던져준다.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주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성희롱에 대한 관심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어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1992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공포,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논의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1994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특별법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처리 및 구제조치를 의무적으로 강구하고 있어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학교 운영을 지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생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대학생들의 성의식, 성경험,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학생들의 학내 복지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대학생들의 성경험이 증가하고 성에 대한 개방된 사고가 확산되어 가는 반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본질에 관해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이상신외, 2002).

제주대학에서도 2001년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성폭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례가 발생한다하여도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은 그 형태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많은 괴로움과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존재를 널리 홍보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당면 과제중의 하나이다.

대학생 시기는 초기성인기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때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나이다. 또한 공부와 입시로 인해 유예되었던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관심이 대학에서 표면화되고 허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식과 성태도를 형성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익혀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의 성문화를 이해하고 본 대학의 재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고 경험한 성희롱·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학 내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및 대처방식, 상담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성희롱과 성폭력이란 용어는 불과 수년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연구로서 정의 또한 학자마다 다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은 성폭력 특별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추행, 강간, 강간 미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이외에도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여지는 성적 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 성폭력의 개념

대학 내 성폭력의 개념은 1994년 신정휴 사건으로 연대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여성문제 동아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의한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육체적 행위가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은미, 2003).

2) 성희롱의 개념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처음 두 가지 정의는 주로 성인 대상, 특히 대학생이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정의를, 세 번째 정의는 보다 직접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성희롱을 성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여성이 원치 않는 육체적·시각적·언어적 행위'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선 불쾌한 응시나 성적 제스처를 비롯하여 여성 차별적인 언사, 그리고 성적 접촉 및 강간 등을 포함한다(장필화, 1994). 둘째는 성희롱을 성을 소재로 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용모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불쾌한 육체적 접촉, 성적 행동과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는 방법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한다(김양희, 1995). 셋째는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이 "학습 현장이나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성적 언동-육체적·시각적·언어적으로 그러한 언동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조건이 되는 경우, 그러한 언동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거나 그러한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나영, 1999)로 규정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의뢰를 받아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제주대학교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9개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2004년 대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지중 불성실한 답안을 제외한 964부를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서울대학교(2003), 춘천교육대학교(2002), 한성대학교(2002) 등에서 실시한 기초도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3개 영역, 즉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대처방식,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성관계에 대한 통념 7문항, 성폭력에 대한 태도 3문항, 성희롱에 대한 태도 13문항 등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대처방식

성희롱·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4문항,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10문항, 물리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등에 관한 9문항 등 총 23개의 문항과 성희롱 대처방식, 성폭력 피해시 의논상대, 피해 및 가해느낌과 피해 장소 등 8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 조사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 조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교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이용 의사에 대한 문항 및 상담실의 주요한 활동내용을 규정해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처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교차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학생들 전체가운데 1000명만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기에 학년별, 소속학과별, 성별이 각기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본 조사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성희롱·성폭력 가해경험에 대해 대다수가 무응답 처리를 한 관계로 분석결과를 전체 재학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결과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이에 관한 23개 문항을 제시하고 5점 척도상의 응답범주(매우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그저그렇다 3점, 그렇지않다 4점, 절대그렇지않다 5점)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1)성폭력에 대한 통념 2)성관계에 대한 태도 3)성희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연령, 학년, 종교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성폭력에 대한 통념

본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7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성폭력에 대한 통념 실태를 측정하였다.

〈표 1-1〉 성폭력에 대한 통념(성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남	여	계		
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2.61 (1.06)	2.33 (1.01)	2.49 (1.05)	4.032	**
2.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3.09 (1.15)	3.58 (1.07)	3.30 (1.14)	-6.594	**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2.66 (.92)	2.86 (.88)	2.75 (.91)	-3.303	**
4.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3.22 (1.26)	3.30 (1.33)	3.25 (1.29)	-.946	
5. 강압적인 성행위라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거나, 신체적인 수용이 일어나면 성폭력이 아니다.	3.02 (1.07)	3.37 (1.04)	3.17 (1.07)	-4.951	**
6.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3.90 (1.04)	3.98 (.86)	3.94 (.97)	-1.197	
7.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3.31 (1.18)	3.71 (1.08)	3.49 (1.16)	-5.193	**
계	3.12 (.54)	3.32 (.55)	3.20 (.55)	-5.240	**

(** : p<.01)

위의 〈표1-1〉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좀 더 기존의 통념을 많이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t=5.240, p<.01). 다만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와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에서만 평균점수가 3.2 이상으로 이성교제 중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t=.946) 남자도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t=1.197)는 것에 있어서 남녀 모두 차이 없이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정도가 비슷하다.

〈표1-2〉 성폭력에 대한 통념(연령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19세이하	20-24세	25세이상	계		
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2.47 (1.07)	2.46 (1.01)	2.68 (1.14)	2.49 (1.05)	2.139	
2.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3.31 (1.12)	3.34 (1.13)	3.10 (1.25)	3.30 (1.14)	1.918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2.75 (.86)	2.74 (.89)	2.77 (1.08)	2.75 (.91)	.034	
4.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3.22 (1.29)	3.27 (1.29)	3.24 (1.32)	3.25 (1.29)	.138	
5. 강압적인 성행위라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거나, 신체적인 수용이 일어나면 성폭력이 아니다.	3.23 (1.04)	3.16 (1.08)	3.10 (1.10)	3.17 (1.07)	.623	
6.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4.07 (.94)	3.89 (.95)	3.89 (1.10)	3.94 (.97)	3.321	*
7.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3.42 (1.22)	3.51 (1.14)	3.53 (1.12)	3.49 (1.16)	.578	
계	3.21 (.54)	3.20 (.55)	3.21 (.58)	3.21 (.55)	.038	

(* : p<.05)

〈표1-2〉를 보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나이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038),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약간 벗어나고 있고, 특히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는 문항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기존의 통념적인 성폭력에 대해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 (F=3.321, p<.05) 남자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1-3〉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약간 벗어나 있고, 특히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에 있어서는 1학년이 2,3,4학년에 비해 기존의 통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F=3.885, p<.01).

〈표1-4〉를 보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종교별로는 차이가 없으며(F=.426),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약간 벗어나고 있었다.

〈표1-3〉 성폭력에 대한 통념(학년별)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F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2.46 (1.06)	2.52 (1.03)	2.45 (1.02)	2.52 (1.06)	2.49 (1.05)	.318	
2.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3.34 (1.13)	3.17 (1.15)	3.28 (1.12)	3.43 (1.17)	3.30 (1.14)	2.116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2.74 (.90)	2.72 (.90)	2.73 (.87)	2.81 (.96)	2.75 (.91)	.409	
4.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3.17 (1.34)	3.30 (1.20)	3.23 (1.31)	3.32 (1.30)	3.25 (1.29)	.648	
5. 강압적인 성행위라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거나, 신체적인 수용이 일어나면 성폭력이 아니다.	3.26 (1.08)	3.09 (1.02)	3.15 (1.13)	3.19 (1.05)	3.17 (1.07)	1.067	
6.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4.10 (.93)	3.85 (1.03)	3.84 (.97)	3.95 (.91)	3.94 (.97)	3.885	**
7.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3.40 (1.25)	3.37 (1.12)	3.49 (1.12)	3.69 (1.11)	3.49 (1.16)	3.483	*
계	3.22 (.56)	3.16 (.53)	3.17 (.53)	3.29 (.57)	3.21 (.55)	2.349	

(* : p<.05, ** : p<.01)

〈표1-4〉 성폭력에 대한 통념(종교별)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F
	없음	불교	개신교	카톨릭	기타	계	
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2.42 (1.00)	2.66 (1.10)	2.41 (.97)	2.44 (1.15)	2.46 (.92)	2.49 (1.05)	2.349
2.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3.29 (1.16)	3.41 (1.10)	3.23 (1.09)	3.15 (1.27)	3.27 (1.00)	3.30 (1.14)	1.196
3.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2.69 (.87)	2.79 (.95)	2.72 (1.02)	2.90 (.89)	2.77 (.81)	2.75 (.91)	1.343
4.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3.24 (1.29)	3.24 (1.34)	3.34 (1.25)	3.31 (1.27)	3.16 (1.17)	3.25 (1.29)	.193
5. 강압적인 성행위라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거나, 신체적인 수용이 일어나면 성폭력이 아니다.	3.17 (1.08)	3.12 (1.07)	3.33 (1.09)	3.23 (1.08)	3.11 (.89)	3.17 (1.07)	.724
6.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3.96 (.97)	3.90 (.96)	3.79 (1.09)	4.02 (.88)	3.93 (1.00)	3.94 (.97)	.799
7.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3.46 (1.16)	3.51 (1.20)	3.61 (1.04)	3.51 (1.15)	3.36 (1.14)	3.49 (1.16)	.431
계	3.19 (.52)	3.23 (.59)	3.20 (.56)	3.24 (.59)	3.16 (.43)	3.21 (.55)	.426

2) 성관계에 대한 태도

〈표1-5〉를 보면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결과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339, p<.01$). 문항별로 보면 '섹스에 대해 여자들은 걸으로는 안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에 대해 남학생이 여성의 성에 대한 태도를 이중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0.147, p<.01$), '성적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한 주도성을 갖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2.999, p<.01$). 그러나 9번 문항의 순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기존 통념을 벗어났으며 남녀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1-5〉 성관계에 대한 태도(성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남	여	계		
8. 섹스에 대해 여자들은 걸으로는 안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3.09 (.96)	3.72 (.92)	3.37 (.99)	-10.147	**
9.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3.22 (1.03)	3.25 (1.18)	3.23 (1.10)	-.475	
10. 성적 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91 (.94)	3.09 (.86)	2.98 (.91)	-2.999	**
계	3.03 (.94)	3.09 (.86)	2.98 (.91)	-9.339	**

(** : $p<.01$)

〈표1-6〉, 〈표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학년별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문항별로 보면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 19세 이하가 20세 이상의 연령보다($F=7.909, p<.01$), 1학년이 2,3,4학년보다 순결에 대한 기존 통념을 덜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4.844, p<.01$).

〈표1-6〉 성관계에 대한 태도(연령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19세이하	20-24세	25세이상	계		
8. 섹스에 대해 여자들은 걸으로는 안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3.40 (1.09)	3.37 (.96)	3.27 (.95)	3.37 (.99)	.627	
9.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2.99 (1.14)	3.32 (1.09)	3.31 (.99)	3.23 (1.10)	7.909	**
10. 성적 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95 (.85)	2.99 (.92)	3.06 (1.01)	2.98 (.91)	.541	
계	3.25 (.87)	3.24 (.80)	3.20 (.82)	3.24 (.82)	.193	

(** : $p<.01$)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종교별로는 차이가 없으며,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약간 벗어나고 있었다.

〈표1-7〉 성관계에 대한 태도(학년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8. 섹스에 대해 여자들은 겉으로는 안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3.36 (1.11)	3.33 (.99)	3.32 (.90)	3.46 (.95)	3.37 (.99)	.970	
9.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3.05 (1.15)	3.16 (1.09)	3.38 (1.05)	3.34 (1.07)	3.23 (1.10)	4.844	**
10. 성적 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98 (.94)	2.88 (.86)	3.00 (.90)	3.08 (.95)	2.98 (.91)	1.935	
계	3.23 (.89)	3.18 (.81)	3.21 (.76)	3.34 (.81)	3.24 (.82)	1.599	

(** : p<.01)

3)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피해자의 행동 및 책임(11-13번), 심각한 사회문제로서의 인식 정도(14-19번), 성희롱과 관련된 일반사항(20-23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피해자의 행동 및 책임

〈표1-8〉에서 보면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 및 책임에 대해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10.088, p<.01$), 11-13번 문항에서 남녀학생 모두가 기존통념을 벗어나기는 했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존통념을 많이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항별로 보면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그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쪽에 많이 응답하고 있으며($t=6.175, p<.01$),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다에 대해서도 성별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여($t=10.751, p<.01$) 남자는 여자보다 성희롱을 성적인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음이 드러났다.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이 많이 발생하는 대학내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 함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대부분의 고소, 고발사건은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양심에서 비롯된다에 대해서도 남녀의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자 쪽에 더 책임이 있다는 기존의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5.636, p<.01$).

〈표 1-8〉 성희롱에 대한 태도(성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남	여	계		
11.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그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3.53 (.93)	3.90 (.88)	3.69 (.93)	-6.175	**
12.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3.10 (.98)	3.75 (.88)	3.38 (.99)	-10.751	**
13. 성희롱에 대한 대부분의 고소, 고발사건은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양심에서 비롯된다.	3.18 (.92)	3.54 (1.01)	3.34 (.97)	-5.636	**
계	3.27 (.71)	3.74 (.68)	3.48 (.74)	-10.088	**

(** : p<.01)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봤을 때 <표1-9>에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그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F=4.144, p<.01$)와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다($F=6.802, p<.01$)에 대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년별, 종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표 1-9> 성희롱에 대한 태도(연령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19세이하	20-24세	25세이상	계		
11.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그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3.74 (.97)	3.72 (.91)	3.45 (.91)	3.69 (.93)	4.144	*
12.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3.45 (.98)	3.42 (.99)	3.06 (.98)	3.38 (.99)	6.802	**
13. 성희롱에 대한 대부분의 고소, 고발사건은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양심에서 비롯된다.	3.29 (.99)	3.38 (.97)	3.20 (.93)	3.34 (.97)	2.065	
계	3.49 (.74)	3.52 (.72)	3.23 (.75)	3.48 (.74)	6.795	**

(** : $p<.01$)

(2) 심각한 사회문제로서의 인식 정도

<표1-10>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 인식에 관한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들은 성희롱을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로 보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났고 반대로 여학생은 성희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경향이 많았다($t=2.431, p<.05$).

문항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폭력과 성희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t=6.124, p<.01$), 성희롱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에서 개입해야 되고($t=7.150, p<.01$),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t=6.908, p<.01$), 또 성희롱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t=7.511, p<.01$).

<표1-10>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성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남	여	계		
14.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3.34 (1.06)	3.78 (.87)	3.53 (1.01)	-6.637	**
15. 성희롱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57 (.98)	4.00 (.82)	3.76 (.94)	-7.150	**
16.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2.36 (1.04)	1.93 (1.01)	2.17 (1.05)	6.124	**
17.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2.50 (.84)	2.11 (.86)	2.33 (.87)	6.908	**
18.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2.49 (.92)	2.31 (.89)	2.41 (.92)	2.930	**
19. 대부분의 성희롱은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3.12 (1.04)	3.61 (.95)	3.33 (1.03)	-7.511	**
계	2.90 (.46)	2.97 (.41)	2.93 (.44)	-2.431	*

(* : $p<.05$, ** : $p<.01$)

〈표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별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에서 25세 이상의 연령이 더 어린 연령의 학생들보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110, p<.05$) 다른 문항에서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1-12〉와 〈표1-13〉에서 보듯이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학년별, 종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1〉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연령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19세이하	20-24세	25세이상	계		
14.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3.60 (.93)	3.55 (1.00)	3.31 (1.16)	3.53 (1.01)	3.110	*
15. 성희롱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80 (.90)	3.75 (.93)	3.71 (1.01)	3.76 (.94)	.390	
16.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2.06 (.97)	2.22 (1.08)	2.15 (1.06)	2.17 (1.05)	2.016	
17.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2.29 (.79)	2.32 (.92)	2.43 (.79)	2.33 (.87)	.962	
18.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2.47 (.87)	2.42 (.92)	2.26 (.96)	2.41 (.92)	1.992	
19. 대부분의 성희롱은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3.42 (.99)	3.33 (1.02)	3.13 (1.14)	3.33 (1.03)	2.888	
계	2.95 (.39)	2.93 (.45)	2.85 (.49)	2.93 (.44)	1.817	

(* : $p<.05$)

〈표 1-12〉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학년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14.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3.57 (.96)	3.45 (1.05)	3.60 (1.01)	3.52 (1.01)	3.53 (1.01)	.978	
15. 성희롱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80 (.96)	3.60 (.96)	3.82 (.94)	3.82 (.86)	3.76 (.94)	3.075	*
16.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2.03 (.96)	2.32 (1.05)	2.15 (1.04)	2.18 (1.13)	2.17 (1.05)	2.977	*
17.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2.30 (.81)	2.45 (.92)	2.37 (.88)	2.17 (.85)	2.33 (.87)	4.270	**
18.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2.45 (.89)	2.47 (.97)	2.40 (.88)	2.34 (.92)	2.41 (.92)	.884	
19. 대부분의 성희롱은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3.41 (1.03)	3.26 (.98)	3.34 (1.03)	3.32 (1.08)	3.33 (1.03)	.869	
계	2.93 (.38)	2.93 (.46)	2.95 (.44)	2.90 (.47)	2.93 (.44)	.345	

(* : $p<.05$, ** : $p<.01$)

〈표 1-13〉 성희롱·성폭력의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종교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F	
	없음	불교	개신교	카톨릭	기타	계		
14.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3.52 (1.02)	3.55 (1.00)	3.57 (.98)	3.60 (.98)	3.30 (.99)	3.53 (1.01)	.707	
15. 성희롱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77 (.95)	3.75 (.91)	3.73 (.91)	3.92 (.85)	3.35 (1.08)	3.76 (.94)	2.771	*
16.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2.18 (1.02)	2.19 (1.07)	2.12 (1.10)	2.11 (1.11)	2.25 (1.01)	2.17 (1.05)	.221	
17.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2.35 (.87)	2.35 (.90)	2.22 (.80)	2.24 (.86)	2.36 (.81)	2.33 (.87)	.692	
18.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2.43 (.88)	2.34 (.92)	2.34 (.99)	2.44 (.98)	2.74 (.91)	2.41 (.92)	1.841	
19. 대부분의 성희롱은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3.33 (1.02)	3.37 (1.02)	3.25 (1.11)	3.29 (1.09)	3.37 (.97)	3.33 (1.03)	.277	
계	2.94 (.42)	2.93 (.46)	2.87 (.48)	2.93 (.50)	2.89 (.33)	2.93 (.44)	.479	

(* : p<.05, ** : p<.01)

(3) 성희롱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표1-14〉를 보면 성희롱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t=4.787, 0<.01) 문항별로 보면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7.936, p<.01). 또 실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관계기관(상담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보고되고 있다는 대해서는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023, p<.01). 성희롱은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다와 동성 간에도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성별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1-14〉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 인식(성별)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남	여	계		
20.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	2.92 (1.05)	3.46 (.97)	3.16 (1.05)	-7.936	**
21. 실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관계기관(상담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보고 되고 있다.	3.25 (.90)	3.49 (.91)	3.35 (.91)	-4.023	**
22. 성희롱은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2.87 (.98)	2.83 (.94)	2.85 (.96)	.632	
23. 동성 간에도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2.56 (1.04)	2.52 (.99)	2.54 (1.02)	.518	
계	2.90 (.58)	3.08 (.53)	2.98 (.56)	-4.787	**

(** : p<.01)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 연령별, 학년별, 종교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희롱·성폭력 경험 및 대처방식

성희롱·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첫째로 일어날 수 있는 유형별로 분류하여 1)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4문항 2)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10문항 3)물리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9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로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 성폭력 피해 시 의논상대, 피해 및 가해 시 느낌과 성폭력 피해가 일어났던 장소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성폭력 경험은 23개의 행동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해본 경험(=가해경험), 당해본 경험(=피해경험), 듣거나 본 경험, 그 상대방의 지위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피해경험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응답하였으나 가해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 당한 경험이나 듣거나 본 경험이 있다는 건 분명 가해자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인데 본인이 가해자임을 직접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해경험에 대한 모든 문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해경험과 듣거나 본 경험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피해경험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언어적 유형의 경험이었고 비언어적 유형이 그 다음이고 물리적 유형의 경험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한 경험에서는 채팅, e-mail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는 응답한 학생이 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듣거나 본 경험 중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남성)을 무시하는 발언이 가장 많은 응답자인 462명이 응답하였다.

〈표2-1〉 성희롱·성폭력 경험(성별)

〈단위 : 명(%)〉

유형	행동	당한 경험			듣거나 본 경험		
		남	여	N	남	여	N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성폭력	1.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남성)을 무시하는 발언	41.0	58.9	178	58.0	41.9	462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	41.2	58.8	199	61.9	38.1	391
	3. 여성다움의 강조	27.4	72.5	204	63.8	36.1	343
	4. 소외시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 및 가요	47.9	52.0	123	59.0	40.9	398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성폭력	5. 이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30.3	69.6	181	63.4	36.5	334
	6.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64.5	35.5	166	61.6	38.3	313
	7. 여성(남성) 앞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부착한다.	45.7	54.3	70	61.0	38.9	298
	8.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남성) 앞에서 낸다.	69.2	30.8	159	63.9	36.1	280
	9. 채팅, e-mail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40.1	59.8	269	63.8	36.2	268

유형	행동	당한 경험			듣거나 본 경험		
		남	여	N	남	여	N
물리적 유형의 성희롱 성폭력	10. 여성(남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 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 놓고 보란 듯이 자위행위를 한다.	29.1	70.9	117	57.4	42.6	284
	11. 동문회 등의 단체모임에서 여성(남성)을 성적 유희대상으로 삼는다.	37.3	62.7	67	60.5	39.5	276
	12. 전화를 통해 성적 표현을 한다.	63.5	36.5	167	60.2	39.8	251
	13. 여러 모임에서 여성(남성)을 소외시킨다.	47.9	52.1	71	54.5	37.3	244
	14. 술자리에서 여성(남성)을 강제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한다.	31.3	68.7	115	62.2	37.8	331
	15.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거나 손을 댈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74.2	25.8	93	65.9	34.1	182
	16.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35.7	64.3	126	64.5	35.5	217
	17. 혹은 술 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64.2	35.8	204	64.2	35.8	204
	18.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47.3	52.7	93	63.6	36.4	176
	19.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요구한다.	68.4	31.6	114	64.5	35.5	166
	20. M.T에서 자고 있는데 몸을 만지거나 강간하려 했다	68.2	31.8	107	66.7	49	147
	21. 자취방 등 혼자 살고 있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하려 했다.	70.1	29.9	107	64.2	35.8	148
	22. M.T나 술자리 등에서 바깥 등 은숙한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하려 했다.	-	-	-	64.4	35.6	146
23. 동아리 방이나 연구실, 강의 등 학교 밀폐된 곳에 혼자 있는데 들어와서 강간하려 했다.	63.4	36.6	123	62.8	37.2	145	

당한 경험을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채팅, e-mail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내는 것에 의해(161명), 남학생은 술취한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131명)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거나 본 경험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남성)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유형의 당한 경험에서는 남학생도 여성다움의 강조를 제외하고는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인 유형에서는 채팅, e-mail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내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남녀 학생 모두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유형 중에서는 모두 술 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가에 가장 많은 학생이 응답하였다.

2) 가해자의 지위

각 행동별로 응답자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의 지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표2-2>, <표2-3>, <표

2-4)와 같다. 거의 모든 문항에서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나 기타라고 응답하였고 대학 내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다음으로 친구나 선배가 가해자가 되는 응답이 많았다.

〈표2-2〉에서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경험 중 가해자의 지위는 제시된 지위의 사람이 아닌 기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지위로는 남녀 모두 친구, 선배의 순이었다.

〈표2-3〉에서 비언어적 유형의 가해자는 기타의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다. 기타와 모르는 사람을 제외하면 11번, 13번, 14번 문항에서는 선배, 친구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그 외의 모든 문항에서는 친구, 선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3〉의 물리적 유형의 가해자를 보면 기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는 술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에 기타(53.4%), 그 다음으로 친구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16번, 17번, 18번 문항에서 기타가 가장 높고 선배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유형의 지위 모두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수나 강사, 학교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직무관계나 권위관계에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2-2〉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지위

〈단위 : 명(%)〉

내 용	성별	N	친구	선배	애인	교수 강사	학교 직원	가족 친척	모르는 사람	기타
1.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남성)을 무시하는 발언	남	73	30.1	11.0	0.7	6.8	-	-	1.4	50.7
	여	105	19.0	24.8	10.5	7.6	4.8	3.8	6.7	33.3
	전체	178	23.6	19.1	0.6	7.3	2.8	2.2	4.5	40.4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	남	82	42.7	11.0	-	3.7	-	1.2	-	41.5
	여	117	27.4	18.8	0.9	3.4	3.4	1.7	5.1	39.3
	전체	199	33.7	15.6	0.5	3.5	2.0	1.5	3.0	40.2
3. 여성(남성)다움의 강조	남	56	21.4	8.9	7.1	3.6	1.8	1.8	-	55.4
	여	148	24.3	19.6	4.1	4.7	3.4	7.4	1.4	35.1
	전체	204	23.5	16.7	4.9	4.4	2.9	5.9	1.0	40.7
4. 소외시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응답패설 및 가요	남	59	25.4	3.4	0.9	0.9	1.3	-	6.8	64.4
	여	64	18.8	23.4	1.2	1.8	4.3	3.1	7.8	46.9
	전체	123	22.0	13.8	1.0	1.3	2.5	1.6	7.3	55.3

〈표2-3〉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지위

〈단위 : 명(%)〉

내 용	성별	N	친구	선배	애인	교수 강사	학교 직원	가족 친척	모르는사 람	기타
5. 이성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남	55	21.7	16.7	1.7	-	-	-	13.3	46.7
	여	126	10.3	15.4	0.7	2.9	1.5	0.7	29.4	39.0
	전체	181	13.8	15.8	1.0	2.0	1.0	0.5	24.5	41.3
6.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남	193	22.3	8.8	2.6	0.5	0.5	-	9.8	55.4
	여	120	19.2	10.8	5.0	2.5	0.8	0.8	11.7	49.2
	전체	313	21.1	9.6	3.5	1.3	0.6	0.3	10.5	53.0
7. 여성(남성) 앞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부착한다.	남	32	12.5	6.3	-	0.5	-	6.3	75.0	75.0
	여	38	5.3	10.5	2.6	1.7	2.6	31.6	47.4	47.4
	전체	70	8.6	8.6	1.4	1.0	1.4	20.0	60.0	60.0
8.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남성) 앞에서 낸다.(듣거나 본 경험)	남	110	15.6	5.6	-	0.6	0.6	-	16.2	61.5
	여	49	7.9	5.9	-	1.0	1.0	-	35.6	48.5
	전체	159	12.9	5.7	-	0.7	0.7	-	23.2	56.8
9. 채팅, e-mail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남	108	6.5	1.9	-	-	0.6	-	34.3	57.4
	여	161	1.2	1.9	-	-	1.0	-	57.1	39.8
	전체	269	3.3	1.9	-	-	0.7	-	48.0	46.8
10. 여성(남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 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 놓고 보란 듯이 자위행위를 한다.	남	34	-	-	-	-	0.6	0.6	22.9	77.1
	여	83	1.2	2.3	-	2.3	0.8	1.7	64.0	30.2
	전체	117	0.8	1.7	-	1.7	0.7	1.1	52.1	43.8
11. 동문회 등의 단체모임에서 여성(남성)을 성적 유희대상으로 삼는다.	남	25	12.0	12.0	-	1.8	-	-	-	76.0
	여	42	2.4	23.8	4.8	4.6	2.4	-	11.9	54.8
	전체	67	6.0	19.4	3.0	2.9	1.5	-	7.5	62.7
12. 전화를 통해 성적 표현을 한다. (듣거나 본 경험)	남	151	6.0	3.3	-	0.7	0.7	-	19.2	70.2
	여	100	8.0	2.0	-	-	-	-	29.0	61.0
	전체	251	6.8	2.8	-	0.4	0.4	-	23.1	66.5
13. 여러 모임에서 여성(남성)을 소외시킨다.	남	34	14.7	14.7	0.7	-	-	-	-	70.6
	여	37	16.2	21.6	1.1	-	5.4	-	5.4	51.4
	전체	71	15.5	18.3	0.8	-	2.8	-	2.8	60.6
14. 술자리에서 여성(남성)을 강제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한다.	남	36	5.4	16.2	-	-	1.5	-	-	78.4
	여	79	-	37.8	1.2	13.4	6.4	1.2	6.1	40.2
	전체	115	1.7	31.1	0.8	9.2	3.3	0.8	4.2	52.1

〈표2-4〉 물리적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지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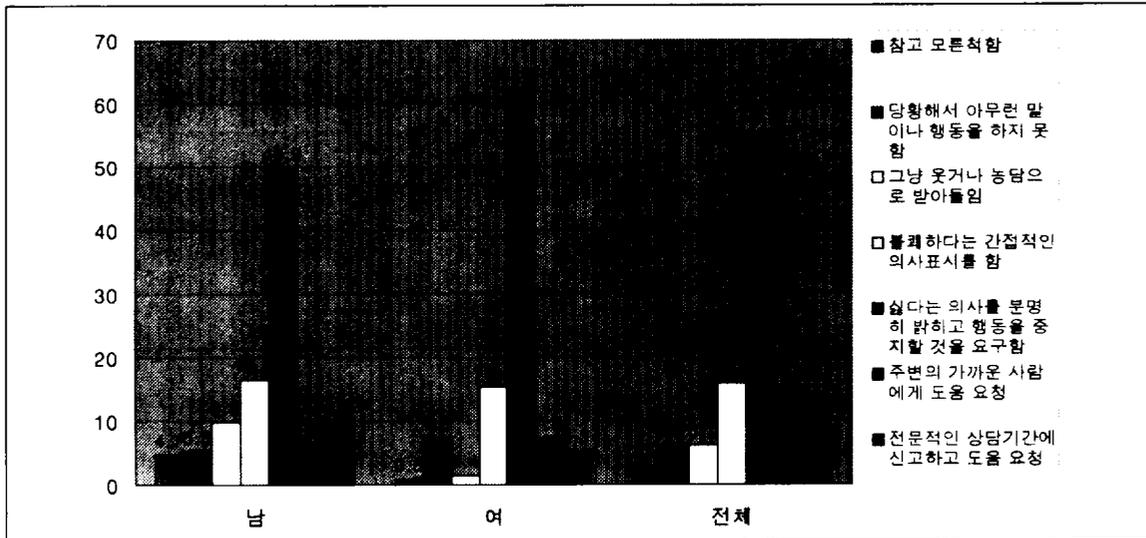
내 용	성별	N	친구	선배	애인	교수 강사	학교 직원	가족 친척	모르는사 람	기타
15.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거나 손을 댄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남	120	9.2	5.0	3.3	0.8	0.8	-	23.3	57.5
	여	62	12.9	14.5	-	1.6	4.8	-	27.4	38.7
	전체	182	10.4	8.2	2.2	1.1	2.2	-	24.7	51.1
16.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남	45	15.6	4.4	2.2	2.2	-	-	2.2	73.3
	여	81	11.1	29.6	1.2	3.7	2.5	-	4.9	46.9
	전체	126	12.7	20.6	1.6	3.2	1.6	-	4.0	56.3
17. 혹은 술 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남	131	17.6	9.2	3.8	1.5	-	-	14.5	53.4
	여	73	16.4	23.3	-	2.7	1.4	-	16.4	39.7
	전체	204	17.2	14.2	2.5	2.0	0.5	-	15.2	48.5
18.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남	44	6.8	6.8	2.3	2.3	-	-	2.3	79.5
	여	49	10.2	20.4	6.1	2.0	2.0	4.1	6.1	49.0
	전체	93	8.6	4.0	4.3	2.2	1.1	2.2	4.3	63.4
19.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요구한다. (듣거나 본 경험)	남	107	3.7	4.7	0.9	1.9	0.9	-	15.0	72.9
	여	59	1.7	10.2	-	5.1	1.7	-	20.3	61.0
	전체	166	3.0	6.6	0.6	3.0	1.2	-	16.9	68.7

내 용	성별	N	친구	선배	애인	교수 강사	학교 직원	가족 친척	모르는 사람	기타
20. M.T에서 자고 있는데 몸을 만지거나 강간하려 했다.	남	98	5.1	7.1	2.0	-	1.0	-	10.2	74.5
	여	49	6.1	8.2	2.0	-	2.0	2.0	10.2	69.4
	전체	147	5.4	7.5	2.0	-	1.4	0.7	10.2	72.8
21. 자취방 등 혼자 살고 있는 곳에서 기다 리거나 찾아와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하거나 강간하려 했다. (듣거나 본 경험)	남	95	4.2	3.2	1.1	-	-	-	12.6	78.9
	여	53	9.4	1.9	1.9	1.9	1.9	-	22.6	60.4
	전체	148	6.1	2.7	1.4	1.4	0.7	-	16.2	72.3
22. M.T나 술자리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했다. 또는 강간하려 했다.	남	94	4.3	5.3	1.1	-	-	-	12.8	76.6
	여	52	11.5	3.8	1.9	-	-	-	19.2	63.5
	전체	146	6.8	4.8	1.4	-	-	-	15.1	71.9
23. 동아리 방이나 연구실, 강의 등 학교 밀폐된 곳에 혼자 있는데 들어와서 강간하려 했다.	남	91	2.6	6.8	7.7	5.1	1.7	0.9	8.5	66.7
	여	54	5.4	8.1	8.1	2.7	1.4	1.4	12.2	60.8
	전체	145	3.7	7.3	7.9	4.2	1.6	1.0	9.9	64.4

3)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식

〈그림1〉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했거나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중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이 55.5%,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이 16.0%,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이 7.8%였다. 또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미 6.1%,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함 6.2%,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 요청이 5.5%, 참고 모른척함 3.0% 였다.

〈그림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성별)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에 응답하였다. 그런데 세 번째 대처방안으로 남학생은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미와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 요

청에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으로 나타나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연령별, 학년별 응답의 차이는 없었으나 종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종교에 상관없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에 가장 많이 반응했는데, 그 다음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은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18.4%).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6.5%) 순이었고, 불교는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13.3%),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7.6%)이며, 개신교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11.6%),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10.1%)이었으며, 카톨릭은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15.8%).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13.7%) 순이었고, 기타는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함(17.1%)과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17.1%)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보다 직접적인 대처를 하였거나 하려 함을 알 수 있으며 다만 '기타'의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좀 적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은 카톨릭 교도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종교별)

(단위 : 명(%))

구 분	없다	불교	개신교	카톨릭	기타	합계	χ^2
참고 모른 척 한다	13 (3.3)	4 (1.9)	5 (7.2)		2 (5.7)	24 (3.0)	46.912**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 한다	22 (5.5)	11 (5.2)	5 (7.2)	6 (6.3)	6 (17.1)	50 (6.2)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다	24 (6.0)	9 (4.3)	6 (8.7)	5 (5.3)	5 (14.3)	49 (6.1)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 (얼굴표정)를 한다	73 (18.4)	28 (13.3)	7 (10.1)	15 (15.8)	6 (17.1)	129 (16.0)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 한다	227 (57.2)	124 (59.0)	34 (49.3)	50 (52.6)	12 (34.3)	447 (55.5)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	12 (3.0)	16 (7.6)	8 (11.6)	6 (6.3)	2 (5.7)	44 (5.5)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 한다	26 (6.5)	18 (8.6)	4 (5.8)	13 (13.7)	2 (5.7)	63 (7.8)	
계	397 (100.0)	210 (100.0)	69 (100.0)	95 (100.0)	35 (100.0)	8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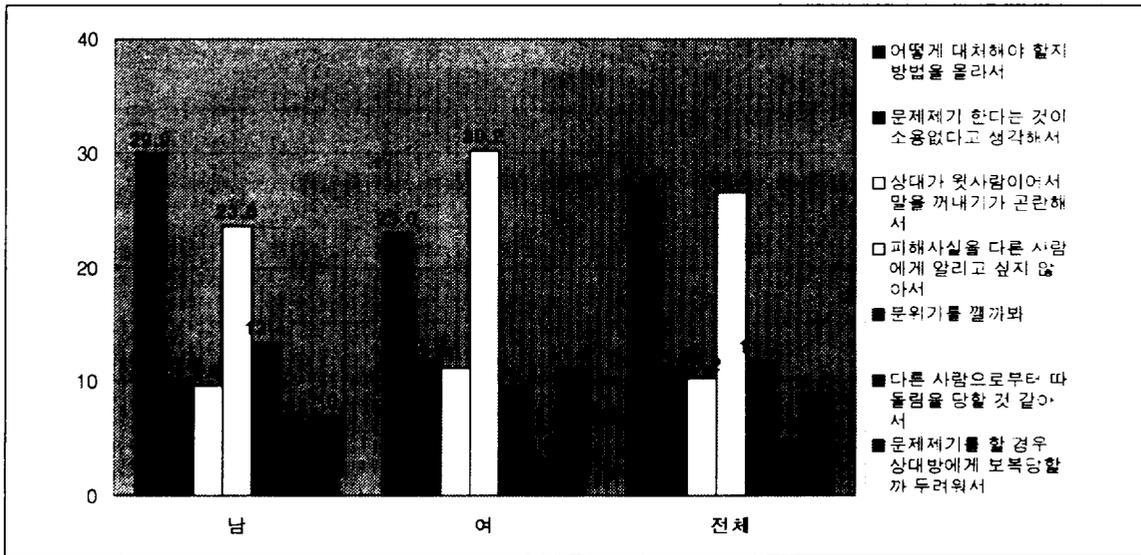
(** : p<.01)

〈그림2〉에서 나타나듯이 성희롱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26.9% 였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26.5%, 분위기를 깔까봐 11.7%, 문제제기 한다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11.0%, 상대가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해서 10.2%, 문제제기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8.8%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가 4.9% 였다.

성희롱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29.9%,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23.6%, 분위기를 깔까봐 13.4%, 문제제기한다

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10.2%, 문제제기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7.0%,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6.4%였다. 여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30.2%, 그 다음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23.0%, 분위기를 쫓겨 봐가 9.5%, 문제제기 한다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11.9%, 상대가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해서가 11.1%, 문제제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11.1%,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가 3.2%였다.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와 분위기를 쫓겨 보라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았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와 상대가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해서와 문제제기 한다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많았다.

〈그림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비대응의 이유(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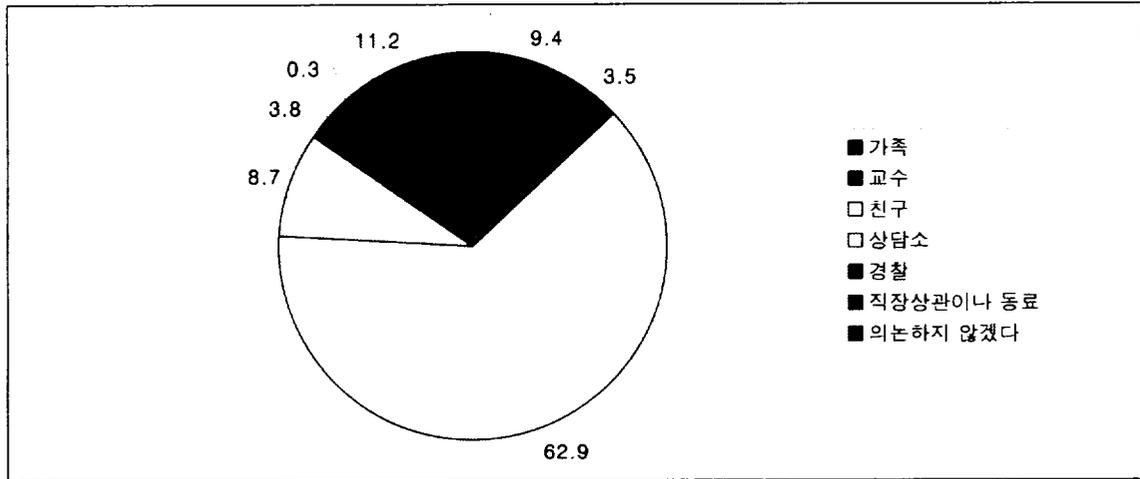


〈그림3〉에서 보듯이 성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의논하고 싶은 상대로는 친구가 62.9%, 의논하지 않겠다고 11.2%, 가족이 9.4%, 상담소 8.7%, 경찰 3.8%, 교수 3.5%, 직장상관이나 동료 0.3%의 순으로 친구를 가장 중요한 의논 상대로 여기고 있음이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친구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의논하지 않겠다고 12.5%인데 이는 여학생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도 친구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많은 응답은 가족 14.3%이었다. 남학생은 가족과 의논하겠다고 응답이 5.6%에 지나지 않았다.

〈표2-9〉에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의논 상대를 종교별로 보면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의논상대로 친구를 제일 많이 선택하였고 두 번째 의논상대로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의논하지 않겠다고 15.1%인데, 불교인 학생은 가족에게(11.3%), 개신교학생은 경찰서에(14.3%), 가톨릭은 상담소에(20.7%) 각각 피해사실을 밝히고 의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논 상대(성별)



〈표2-9〉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논 상대(종교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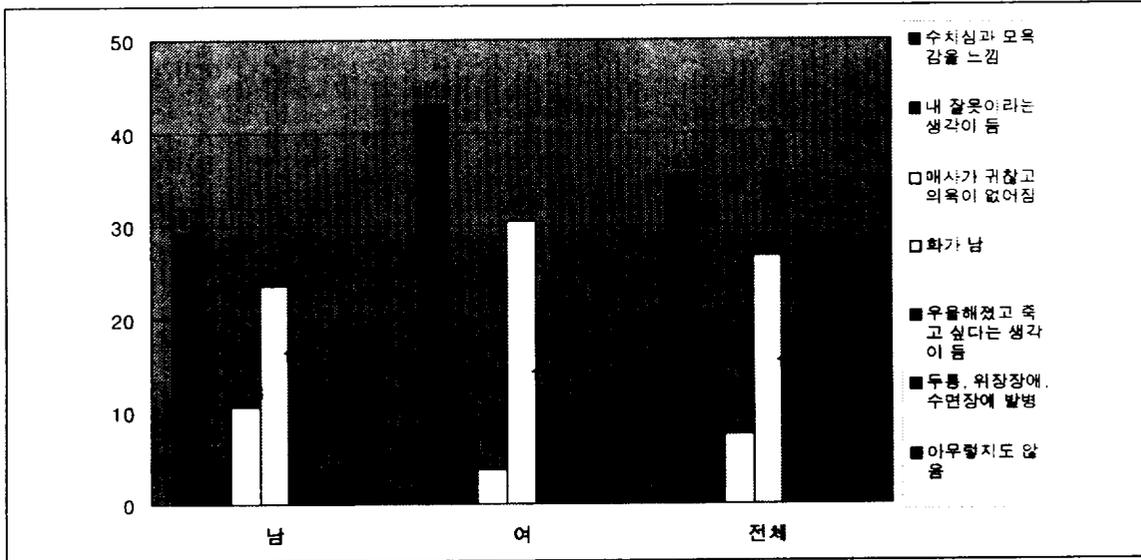
구 분	없다	불교	개신교	카톨릭	기타	합계	χ^2
가 족	13 (8.9)	8 (11.3)	1 (3.6)	4 (13.8)	1 (8.3)	27 (9.4)	37.515*
교 수	5 (3.4)	2 (2.8)	2 (7.1)		1 (8.3)	10 (3.5)	
친 구	84 (57.5)	52 (73.2)	17 (60.7)	17 (58.6)	10 (83.3)	180 (62.9)	
상 담 소	16 (11.0)	2 (2.8)	1 (3.6)	6 (20.7)		25 (8.7)	
경 찰	6 (4.1)		4 (14.3)	1 (3.4)		11 (3.8)	
직 장 상 관 이 나 동 료		1 (1.4)				1 (.3)	
의 논 하 지 않 겠 다	22 (15.1)	6 (8.5)	3 (10.7)	1 (3.4)		32 (11.2)	
합계	146 (100.0)	71 (100.0)	28 (100.0)	29 (100.0)	12 (100.0)	286 (100.0)	

(*: p<.05)

〈그림4〉의 성폭력피해를 당한 후 피해 느낌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것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낌이 35.5%였고 그 다음으로는 화가 났다 26.8%, 우울해졌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13.6%, 아무렇지도 않았음이 8.8%,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어짐이 7.5%,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이 6.1%,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발병이 1.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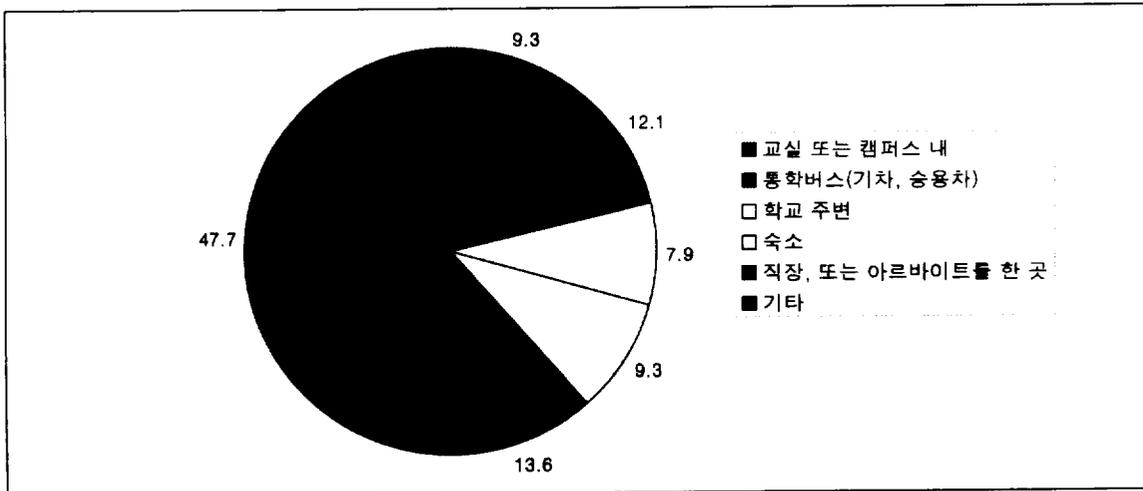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수치심과 모욕을 느낀다는 반응이 남학생(29.3%)보다 여학생들(42.9%)에게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15.4%이고 여학생은 1.0%로 나타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피해의식을 갖게 됨을 보여준다.

〈그림 4〉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후 피해 느낌(성별)



〈그림5〉의 피해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기타가 4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13.6%였고, 통학버스 12.1%, 숙소와 교실 또는 캠퍼스내가 각각 9.3%, 학교 주변이 7.9%였다.

〈그림 5〉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장소(성별)



3.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 대한 의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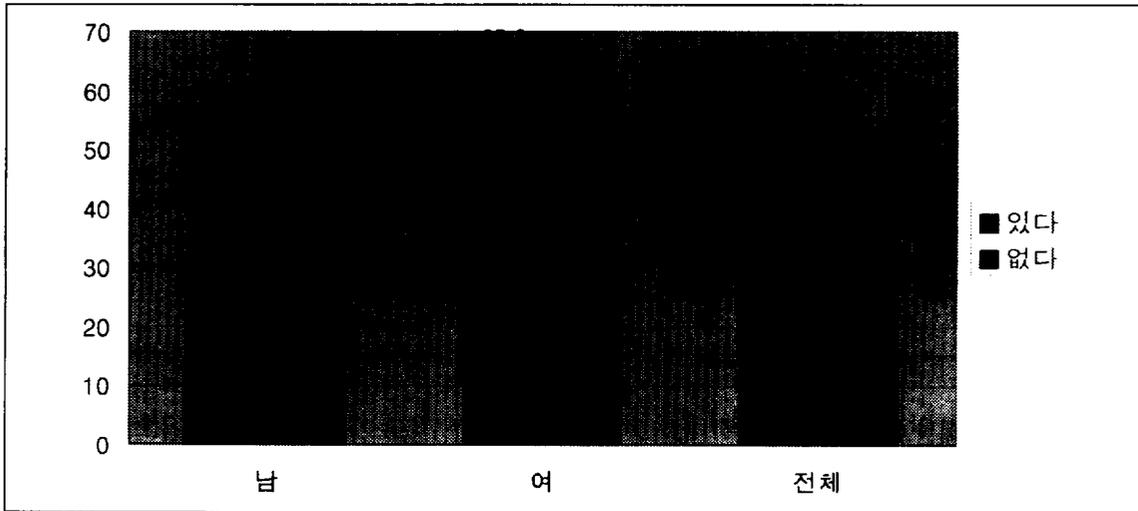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그림6〉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56.0%, 없다가 44.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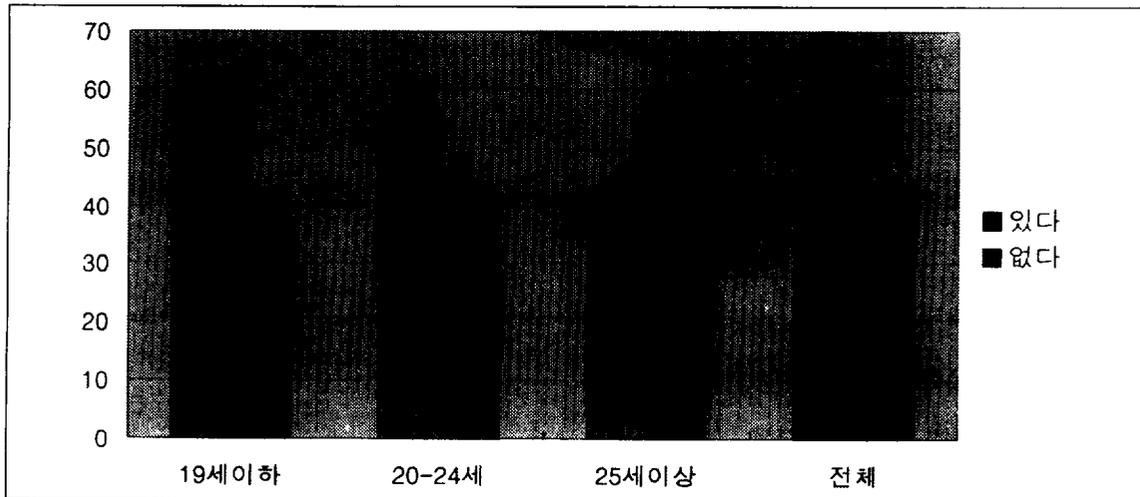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48.3%)이 받지 않은 경험(51.7%)보다 적으며, 여학생은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65.8%, 없다가 34.2%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성별)



〈그림 7〉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을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60.7%이고 20-24세는 43.7%, 19세 이하는 받은 적이 있다가 62.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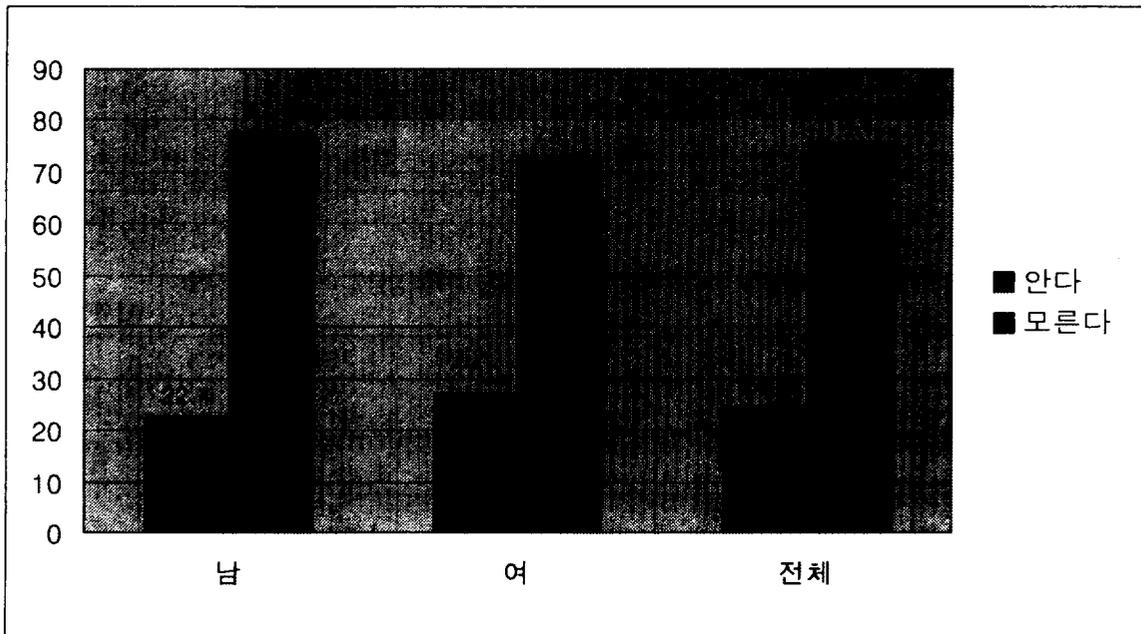
〈그림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연령별)



2)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인지

〈그림8〉에 나타나있듯이 교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른다가 75.6%, 알고 있다가 24.4%로 성별 구분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규정과 상담실 운영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리규정과 상담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과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인지 여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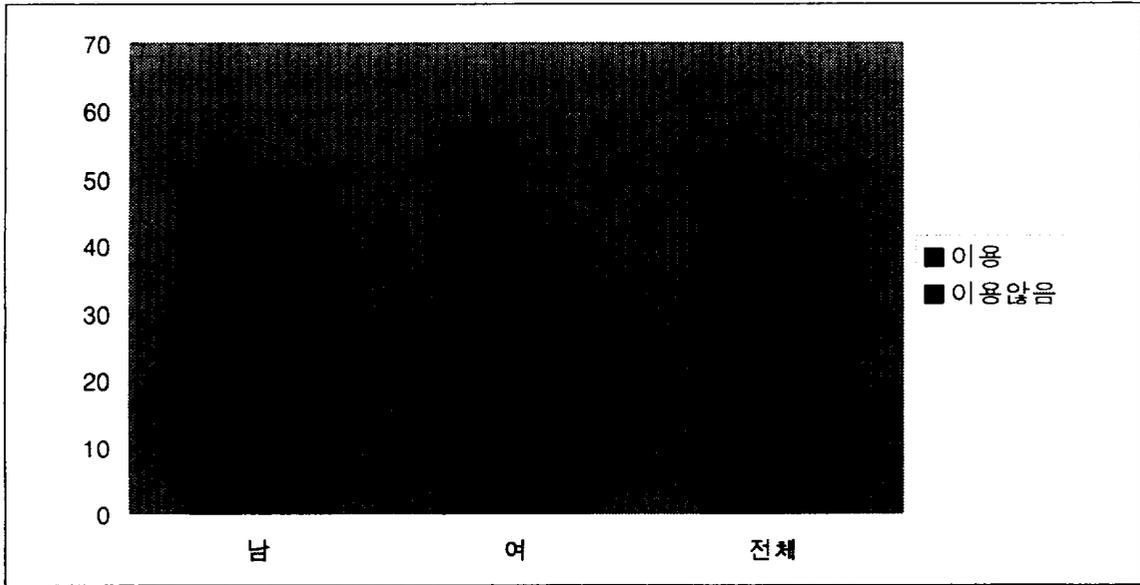


3)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교내 상담실 문의여부에 관한 의견

〈그림9〉에 나타나있듯이 교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의 사례가 있을 때, 교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대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4.2%,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51.2%, 여학생의 57.8%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종교별로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상담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표3-5〉 참조).

〈그림 9〉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교내 상담실 문의여부



〈표3-5〉 교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 발생시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이용 의사(종교별)

〈단위: 명(%)〉

구분	없다	불교	개신교	카톨릭	기타	전체	χ^2	
이용	190 (49.0)	136 (63.0)	40 (57.1)	50 (55.6)	14 (46.7)	430 (54.2)		11.953*
이용않음	198 (51.0)	80 (37.0)	30 (42.9)	40 (44.4)	16 (53.3)	364 (45.8)		
계	388 (100.0)	216 (100.0)	70 (100.0)	90 (100.0)	30 (100.0)	794 (100.0)		

(*: p<.05)

4) 교내 상담실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의견

〈표3-6〉과 〈표3-7〉의 교내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활동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응답이 63.4%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에 대한 응답으로 46.0%였다.

〈표3-6〉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가장 중요한 활동 1순위(성별)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성폭력 예방교육	290 (67.3)	197 (58.5)	487 (63.4)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	33 (7.7)	26 (7.7)	59 (7.7)

구 분	남	여	전체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	43 (10.0)	49 (14.5)	92 (12.0)
성폭력 가해자 징계 및 처벌	65 (15.1)	65 (19.3)	130 (16.9)
계	431 (100.0)	337 (100.0)	768 (100.0)

〈표3-7〉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가장 중요한 활동 2순위(성별) 〈단위 : 명(%)〉

구 분	남	여	전체
성 폭 력 예 방 교 육	33 (8.0)	54 (16.6)	87 (11.8)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	117 (28.5)	68 (20.9)	185 (25.1)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	194 (47.2)	145 (44.5)	339 (46.0)
성폭력 가해자 징계 및 처벌	67 (16.3)	59 (18.1)	126 (17.1)
계	411 (100.0)	326 (100.0)	737 (100.0)

5) 학내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대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적도록 했다. 제시된 의견들을 보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기 즉 자기 자신 보호하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한다, 당당한 의사를 밝힘, 밤에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교육을 받는다, 사건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평소 자신의 성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성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낫다 등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점검으로 동아리방이 후미진 곳 위험하다는 지적 관심을 두어 성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지도해야 할 지역에 대한 의견 및 사이버상담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상담 받을 수 있게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조사연구는 대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인식과 경험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여 제주대학생들의 성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대학내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주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기존 통념, 성관계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의 통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성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은 사회적인 기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식수준이 낮고 남성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성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를 이중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기존 통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또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도 남학생이 피해자의 유발이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많았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보는 시각은 여학생이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라고 여기는 반면 남학생들은 성적 장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성희롱·성폭력을 보는 시각이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공통 인식이 부재하다는 것은 앞으로 학내 성폭력 및 성희롱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문제 못지않게,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공통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막연한 가해/피해의 양분법을 넘어서서 성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와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성희롱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재인식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듣거나 본 경험으로 나누어 본 결과 가해경험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던 점이 특징적이었다. 피해사실이 있다고 응답된 점을 볼 때 가해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는 이유는 실제로 조사 대상자들이 가해 경험이 없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역사회인 점을 고려해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폐쇄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유형의 순으로 응답률이 많았으며 언어적 유형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언어적, 물리적 유형에서 도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한경험과 듣거나 본 경험 중 당한경험보다 듣거나 본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때 가해자의 지위는 모르는 사람이나 기타가 가장 많았고, 피해가 일어난 장소로는 학교를 벗어난 기타 장소가 가장 많이 응답된 점으로 보아 학내 성희롱·성폭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의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학생들 상호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극소수이긴 하지만 교수 또는 교직원이 가해자로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은 비록 아주 드물게 일어나긴 해도 대학 내 직무관계 또는 권위관계가 동반되는 성희롱 내지 성폭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남녀 모두 가장 높아 응답자들의 대처방식이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는 대상은 친구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은 믿을만한 친구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거나 또래상담원을 활용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특이한 점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이중적 성규범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지만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식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겠다고 대답하여 의식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문제 못지 않게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공동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성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와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성희롱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재인식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 대한 의견 조사

제주대 성희롱·성폭력 처리 규정에 대한 인지정도는 남녀 모두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처리규정에 대한 제정이 오래 되지 않았고 공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이 규정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인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하고 일회적인 홍보보다는 전학생들에 대한 의무 교육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의 활동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을 올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창임(2003), 해전대학 재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해전대학학생생활연구, 제8집, pp.46-76
- 김은미(2003),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성폭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12호, pp.42-75
- 노충래(2002), 청소년의 성희롱 피해 및 가해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4권 pp.36-68
- 박범 외(2003), 아주대학교 재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아주대학교
- 송영선(2003), 대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 12권 제 4호, pp.444-452
- 오운자, 김영아(2004), 2003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의 성의식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pp.69-128
- 이상신, 윤지현, 이면우(2002),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4집, pp.89-135
- 이숙영, 박금남, 김성희(2003), 성태도 및 성폭력 실태조사, 전주대학교 학생상담연구, 제1권, pp.1-58
-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2004),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2003),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Abstract>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Park, Kum-ju, Kim, Doo-Hwa, Kim, sung-h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sex culture of college students by surveying the students' awareness and experience abou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and their responses and opinions, and ultimately to provide basic data for in-campus programs and guidance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To this end, the survey was composed of three parts; awareness on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s,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or assault, and opinions on the consultation program on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s.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000 students in 9 college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CNU), and analyzed the answers of 964 respondents.

This research used SPSS statistical program to process data and conducted t-verification and F-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awarenes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CNU students' common notions on sexual assaults, attitudes toward sexual relations, views on sexual harassment ar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generally accepted ones, but lower than socially expected. In general, male students have more stereotypes on these matters and take them less seriously than female students. Both of them have a man-oriented attitude. While female students tak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s as social problems, male students just take them as flirting.

2)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After conducting a survey with three cases; committing experience, suffering experience, and experience of hearing of or seeing, there is no case in committing experience.

In case of suffering sexual harassment or assaults, verbal, nonverbal, and physical cases are answered in order. In case of verbal harassment, female and male students suffer similarly, while more male students experience nonverbal, physical harassment and assaults, which shows that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are happening irrespective sex.

As to inflictors, strangers are the most.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occur more in other places rather than in campus, while in-campus cases are relatively less answered.

In-campus cases are mostly between students, but there are cases where a staff member or a professor is an assailant, though very rare.

About the reaction to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the highest number of students, male and female, answered they say "No" and ask to stop. Their reactions seem to be active and desirable. Most of them talk with their friends about the problem.

3) Opinion on the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consultation center

The level of awareness of CNU students about the center's regula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cases is very low; therefore they said the center should give the priority to education for sexual assaults prevention.

- As equally important as to resolve the case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there should be efforts to build a common perception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To this end, education and discussion programs should be activated and continued to give students a right understanding of this issue.

- In-campus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are mostly between students, but there are cases where a staff member or a professor is an assailant, though very rare. Since such a case, if happening, is related to officials' duty and authority, it should be completely prevented.

-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would be desirable to conduct in a small group consisting of friends or peers.

- It is needed to widely inform members of the university about the regulation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In this regard, compulsory and regular education should be offered to all the CNU students rather than one time campaign.

-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center to conduct all-year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2004년 대학생 성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들의 성의식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서 실시하는 설문지로서 재학생들의 효과적인 상담과 성폭력 예방대책에 필요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익명으로 실시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오니, 설문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___ 대학 _____ 학과군(학부, 학과) _____ 학년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성 문 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5-13. 성희롱에 대한 대부분의 고소, 고발사건은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양심에서 비롯된다					
5-14.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5-15. 성희롱은 개인들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16.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5-17.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들 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5-18.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5-19. 대부분의 성희롱은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5-20.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					
5-21. 실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관계기관 (상담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보고되고 있다					
5-22. 성희롱은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5-23. 동성간에도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Ⅲ. 성희롱·성폭력 경험

6. 아래 예시된 내용을 읽고 귀하의 경험을 표시해 주시오.

▶ 타인에게 행한 적이 있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거나 행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에 해당 칸에 상대의 지위를 예에서 찾아 번호를 써주십시오.(중복 응답 가능 합니다)
 '예' 친구에게 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 친구가 누구에게 당했는지 가해자의 지위를 찾아 번호를 해당 칸에 기록하면 됩니다.

유 형	행 동	해본 경험	당해본 경험	듣거나 본경험	(예) 상대방 지위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성폭력	6-1.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남성)을 무시하는 발언				①친구 ②선배 ③애인
	6-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				
	6-3. 여성다움의 강조				
	6-4. 소외시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 가요				

I. 인적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 ② 여

2. 당신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안에 직접 쓰십시오.

만(_____)세

3. 지금 제주대학교 몇 학년에 재학 중이십니까 ? ()안에 직접 쓰십시오.

(_____)학년 재학 중

4.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 ① 없 다 ② 불 교 ③ 개 신 교 ④ 카 톨 릭 ⑤ 기 타

II.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5. 다음의 성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해당 칸에 V표)

성 문 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5-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5-2.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5-3. 여자들의 아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5-4. 이성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5-5. 강압적인 성행위라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거나, 신체적인 수용이 일어나면 성폭력이 아니다					
5-6.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5-7.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5-8. 섹스에 대해 여자들은 겉으로는 '안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5-9.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한다					
5-10. 성적 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11.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그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5-12.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유형	행동	해본 경험	당해본 경험	듣거나 본 경험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성폭력	6-5. 여성(남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겉눈질 한다				(예) 상대방 지위 ①친구 ②선배 ③애인 ④교수/ 강사 ⑤학교 직원 ⑥가족/ 친척 ⑦모르는 사람 ⑧기타
	6-6.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6-7. 여성(남성) 앞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부착한다				
	6-8.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남성) 앞에서 낸다				
	6-9. 채팅, e-mail 등을 통해 성적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6-10. 여성(남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 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 놓고 보란 듯이 자위행위를 한다				
	6-11. 동문회 등의 단체모임에서 여성(남성)을 성적 유희대상으로 삼는다				
	6-12. 전화를 통해 성적 표현을 한다				
	6-13. 여러 모임에서 여성(남성)을 소외시킨다				
	6-14. 술자리에서 여성(남성)을 강제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한다				

7. 위와 같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 ① 참고 모른척 한다
- ② 당황해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 ③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 ④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얼굴표정)을 한다
- ⑤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⑥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⑦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피해자)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은 경우에만 문8~문11 에 응답하시오.

8.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어도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② 문제제기 한다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 ③ 상대가 윗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가 곤란해서 ④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 ⑤ 분위기를 깰까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⑥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 ⑦ 문제제기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서

9.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의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 ① 가 족 ② 교 수 ③ 친 구 ④ 상담소(상담원)
- ⑤ 경 찰 ⑥ 직장상관이나 동료 ⑦ 의논하지 않겠다

10.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피해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

- 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②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③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어졌다 ④ 화가 났다
- ⑤ 우울해졌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⑥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의 병이 생겼다
- ⑦ 아무렇지도 않다

11. 피해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 ① 교실 또는 캠퍼스 내 ② 통학버스 (기차, 승용차) ③ 학교 주변
- ④ 숙 소 ⑤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곳 ⑥ 기 타

※ 성희롱·성폭력을 행한(가해자)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한 사실을 들은 경우에만, 문12~문14 에 응답하시오.

12.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후에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 ①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② 성희롱·성폭력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다
- ③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 ④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